

# 하이닉스, 최태원 대표이사 회장 선출

권오철 사장도 공동 대표이사로 ... 적기투자에 책임경영 강화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하이닉스는 2월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하이닉스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추대했으며, 이사회 의장직은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맡고 권오철 사장은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대표이사 사장을 계속 맡게 됐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그동안 하이닉스를 잘 이끌어 준 경영진과 함께 하이닉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글로벌 반도체기업으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닉스는 공동대표 선임에 대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철 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본격적인 경영 참여로 적기 투자 및 중장기 역량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변동성이 심하고 대규모 투자를 수반해야 하는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대주주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 대표이사 선임에 따라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의 경영 전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일부 주주들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14>